2024년 1월 14일(주일) 제1665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울 교 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고 이종윤 원로목사 1주기 추모 행사

오늘 찬양예배 시 추모예배
1월 18일(목) 묘소방문예배,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별세하신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를 고 이종윤 원로목사 1주기 추모예배로 드립니다.

손달익 위임목사님이 인도와 축도를, 기도는 서문석 원로장로님, 설교는 손인웅 목사님(기독교 학술원장), 약력보고는 최형열 장로님(당회서기), 추모사는 이영희 은퇴권사님(사라전도회 직전회장)이 하시며 예배찬양은 연합찬양대(지휘:유태왕 안수집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추모예배 순서 마지막에는 '열렸다 하늘 문이'를 연합찬양대와 성도가 함께 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고 이종윤 원로목사 1주기 추모예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 1주기 추모를 위한 묘소방문은 1월 18일(목)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날 설교는 손달익 위임목사님, 기도는 정병무 은퇴장로님께서 하십니다.

묘지에서의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 개인 차편으로 오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연혁 페이지 신설

교회 홈페이지에 연혁페이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해인 1991년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각 해에 있었던 중요 행사나 명단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도 기억하여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고자 판결 결과를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헌 은퇴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어촌100교회 · Vision2030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모집

2024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30 운동, 한가정한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후원 접수 용지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추가 임명

지난 1월 10일(수)에 있었던 1월 정기당회에서 교회의 원활한 감사 업무를 위하여 세무사인 김형상 안수집사, 공인회계사인 이용호 안수집사를 감사위원으로 추가 임명하였습니다.

김형상 안수집사

이용호 안수집사

성경통독자 추가

3교구 전성희1 권사(1독)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린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함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1991년 11월 24일 창간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copyrights ⓒ seoulchurch, all right reserved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tel :(02)558-1106 fax : (02)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모든 것을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골로새서 3:23-25)

우리가 믿는 복음은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순종에 대한 이유와 순종할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사도는 우리의 위치와 권리를 먼저 상기시켜 주면서 성도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면서 직분자들은 받은 직분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우리의 관심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상적 삶의 행위로 주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되 그리스도 외의 다른 동기는 완전히 파괴 시키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행위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므로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하고 기도 또한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시 72:15),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판과 비난을 개의치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또 교회를 섬기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랑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평생 괴로움과 고통이 와도 주 그리스도만 섬겨야 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 이종윤 원로목사

고 이종윤 원로목사 1주기 추모

故 이종윤 원로목사님 당신이 많이 그립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실 목사님

정병무 은퇴장로
(6교구)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전능왕 아버지 하나님!

어언 고 이종윤 목사님을 저 천국으로 보내드린지 한 해가 지나, 오매불망 그리움을 안고 지금 이곳에 추도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회 가족들은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과 하염없는 눈물로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1년 전 애통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시며 사랑하는 양들만을 위하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던 말씀을 당신이 몸소 실천하시어 순종의 본을 보이셨으니,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려 드리며 우리 뭇 양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의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렁찬 목사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온 힘을 다 쏟아 내시던 그 사자후 같은 음성이 저희들의 가슴과 귓전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비록 육신은 땅에 묻혀 계시지만 그 영혼은 영생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목사님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뜻을 이어 받아 몸된 교회 회복과 부흥에 온 힘을 다하지만 아직 부족함에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손달익 위임목사님께 영력을 칠 배나 더 부어 주시어 일취월장(日就月將)의 서울교회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홍순복 사모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녀 손들에게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고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한 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목자의 삶을 사신 목사님

이영희 은퇴권사
(사라전도회 직전회장)

그리운 이종윤 목사님,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참 목자를 만나 참 신앙을 배운 행복자들입니다.

1988년 이종윤 목사님은 저희 가정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 위임목사로 오시었습니다. 남편 오정수 장로는 37세의 나이에 장로가 되어 위로 70여 분의 선배 장로님들 밑에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생전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오묘하셔서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모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누명을 홀로 뒤집어 쓰시고 혹시 교회에 분쟁이라도 일어날까 봐 조용히 도미하셨던 이 목사님은 1991년 가을, 삭발을 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8일(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 분의 삶에는 오직 서울교회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1991년 10월 6일 논현동 신축건물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169명의 성도들은 이 목사님을 모시고 눈물로 첫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논현동에서 반포동을 거쳐 여기 대치동 성전으로 와서 서울교회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생전에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에 기여한 업적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나 그 상은 이미 하나님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엄하신 모습과는 달리 목사님의 내면은 한없이 따뜻하셨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 아시는지 주일이 지나면 교역자 회의에서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하시며 무슨 일이 있으신지, 편찮은 건 아니신지 알아보라고 하시며 부목사님들을 채근하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치과 치료가 여의치 않은 어느 노 권사에게는 목사님께서 치료비를 다 부담하시며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지요.

평생 하나님 목회를 하시느라 옆도 뒤도 안 돌아보시던 이 목사님은 항상 자신을 불탄 포도넝쿨에 비유하셨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는 다시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허물을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목사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거리낌 없이

(4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나깨나 우리를 가르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편하게 안식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아직도 서울교회를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며 부쩍 쇠잔해지셨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훌쩍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휠체어를 타시고라도 예배당에 이 목사님이 계실 때면 아버지가 집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든든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서울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립습니다!

사도바울을 닮고 싶으셨던 목사님

오충례 권사
(2교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Coram Deo와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故 이종윤 목사님께서 소천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평생 사역하시고 사도바울을 닮고 싶으셨던 목사님께서는 몸의 기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휠체어를 타시며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하셨습니다.

단상에서 근엄하신 모습과는 다르게 속마음은 따뜻하셔서 "내 사랑하는 서울교회여~"라고 말씀하실 때에 목이 메이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번은 설교 중 노인들에게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지막 한 계단을 남기고 넘어져 골절되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것을 볼 때마다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수요 2부예배 기도 중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Hope)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천국의 언어는 희망이 아닌 소망(Hope)이라는 거룩히 구별된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맡겨진바 된 많은 양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신 목사님

이영주 권사
(7교구)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신지가 벌써 1년이 된 지금 청지기 된 우리는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꼭 필요한 사람인지, 협조적 방해꾼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살아생전에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5분 늦으면 다른 사람 시간을 그만큼 빼앗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재해석하시며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기도하시고 연구하시어 한국 교회에 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남겨주셨지요. 그 새벽에 봉사자들과 함께 목사님들의 식사를 기쁨으로 준비했던 것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서울교회의 연합을 원하셨던 것처럼 서울교회 온가족은 지난 여름 한마음축제도 잘 치루었답니다. 어느 해인가 교회가 체육대회를 할 때 결혼식 관계로 저를 포함한 만나홀 직원들은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식사를 하러 오신 목사님께 말씀 드리니 목사님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나홀 직원들은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 다른 길이 열리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님 접대하시기를 좋아하셨던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킴치 세미나 등을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께서 서울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의 틀을 잘 잡아주셔서 손달익 위임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열심히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세월을 아끼는 삶, 화목하는 삶, 연합하는 삶,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보고 싶은 목사님

김영표 안수집사
(2교구)

존경하고 꼭 다시 뵙고 싶은 이종윤 목사님!

하늘에서 서울교회 늘 보고 계시지요?

저는 주일 만나홀에서 설거지하며 목사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습니다. 항상 먼저 식사하지 않으시고, 홍순복 사모님을 30분 넘게 기다리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오랜만에 미국에서 온 가족과도 외식을 마다하고, 8층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숙연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했던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은 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서울교회 50주년, 100주년을 고대하고 준비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다가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그리운 목사님!

감사합니다!

▲ 지난 주일은 2024년 첫 주일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 1월 6일(토)에는 1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있었으며 자녀축복기도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사진:정승균 안수집사
임종현 안수집사

2024 일꾼들에게 듣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안수집사 되게 하옵소서

임우택 안수집사
(2024 스데반회 회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희망찬 새해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저희의 잘잘못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새 아침을 저희에게 펼쳐 주셨습니다. 코람데오, 천국의 삶을 힘차게 살라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새 빛을 비춰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위대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 스데반회 표어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빌 2:5)로 정했습니다.

새해에는 진심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베껴 그리며 주님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2024년 스데반회 3대 목표를

첫째, "한 사람씩 전도하자"입니다.

우리에게 전도는 삶이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일상이 행복해야 전도가 더 잘됩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현안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공 예배에 참석하자"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주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한 가지씩 봉사하자"입니다.(막 10:45)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의 샘이 넘쳐 흘러, 웃음 꽃과 사랑의 꽃을 내 마음에 심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겠습니다.

스데반회 주관 행사로는 교제와 소통과 화합을 위해 2월/척사대회, 6월/체육대회, 10월/가을줍기 대회를 열겠고, 특별히 분쟁 중 상한 심령과 마음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3월/내적 치유, 8월/전도 훈련, 11월/성령 회복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목사님을 모시고 회원 가정과 삶의 터전 심방을 강화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심방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 무엇보다도 스데반 회원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 위에 함께 계시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득녀

- 4교구
이준원 성도·김지영 성도
이하린 아기
(2교구 김형상 안수집사·최금숙 권사 외손녀)

식사·떡 제공

- 고 이종윤 목사님 유족
홍순복 사모·이미리 집사·이미영 집사·이미경 집사
(고 이종윤 목사님 1주기를 맞아)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겨울학기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기간:1.13일(토)-3.17(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10시간 기준)
클래식기타·색소폰 반은 별도)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010-9189-8019)
5. 구글신청서 양식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B101	장윤식 집사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회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연기	찾아가는 힐링연기	토	11:30-	10주	702	박재현 배우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꽃 (비단채색화)	주일	14:00-(100분)	5주	704	유은경 집사

2024 청년부 비전트립팀 여름 의류·의약품 모집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팀에서 필리핀 빈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여름 의류와 수건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지 않는 반팔 티셔츠와 수건(세탁 필수)
2. 의약품:처방전 필요 없는 감기약, 소염진통제, 마데카솔, 비타민 등
3. 수거 기간:1월 7일(주)-1월 28일(주) 4주간
4. 수거 장소:1층 로비 웨민홀과 102호 사이
5. 문의:권소희 권사·송미정 권사·임미경 권사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1월15일	월	창 24–25	창16	마15	느5	행15
1월16일	화	창 26–27	창17	마16	느6	행16
1월17일	수	창 28–30	창18	마17	느7	행17
1월18일	목	창 31–32	창19	마18	느8	행18
1월19일	금	창 33–35	창20	마19	느9	행19
1월20일	토	창 36–37	창21	마20	느10	행20
1월21일	주일	창 38:1–41:36	창22	마21	느11	행21

2024년부터 기존의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서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맥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저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과 몸의 상처가 치유받으며, 그 은혜로 이웃을 치유하는 치유자 되게 하소서.

2. 교회를 세우실때 주셨던 3대 비전(세계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을 가슴에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서울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3. 이 땅에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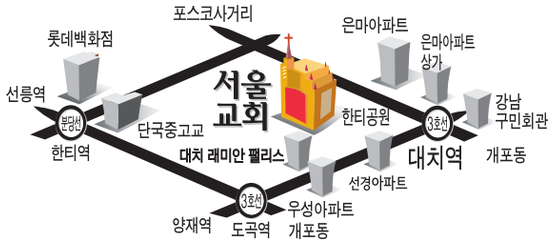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전도사
박미라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협동목사
양정호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